

1,350원 공방 지속

■ 주간동향: 잭슨 홀 이벤트, 달러 강세에 더욱 힘을 실어줘

- ✓파월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파월 피봇'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매파적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져주면서 가뜩이나 초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에 더욱 힘을 실어줌
- ✓유로화 가치의 하락 폭은 전주대비 다소 완화되었지만 패리티 이하에서의 초약세 현상은 유지됨. 달러화 강세와 함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우려로 인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 현상 지속이 유로화 약세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음
- ✓위안화 가치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혹은 방어를 위한 추가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중국 경기 경착륙을 둘러싼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이 주초 1,345원까지 급등하는 등 1,350원 수준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잭슨 홀 이벤트 관망심리, 주가 반등 그리고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한채 마감함

<표>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

	8월 26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108.8	0.59	13.73
달러/유로	0.997	-0.71	-12.35
엔/달러	137.6	0.49	19.60
역외 위안/달러	6.895	0.86	8.46
원/달러	1331.3	0.41	11.99

■ 금주: 원/달러 1,350원을 돌파를 두고 공방 지속

- ✓파월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통해 미 연준의 매파 기조가 확인됨으로써 당분간 달러 강세기조를 꺾을 수 있는 모멘텀 혹은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유로화의 추가 약세 흐름은 강화될 수 있어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천연가스발 에너지 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가뭄 리스크마저 유로 경기는 물론 유로화 가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여기에 파운화 역시 영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급락하고 있음도 달러화 추가 강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음
- ✓위안화 역시 하락세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경기 방어를 위한 잇따른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부양효과에 대한 의문은 위안화 가치 반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주 발표될 8월 제조업 PMI지수 역시 2개월 연속 50선을 하회할 공산이 높다는 점도 위안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불안한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금주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50원선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정부의 1,350원선 방어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1,350원 저항선이 쉽게 돌파될지는 않을 것임. 1,350원을 둔 시장과 정부간 공방이 예상됨

연일 급등중인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화 약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파운드화 가치의 추락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